

## 보리수매가 7.5% 인상

### 쌀보리 1等기준 2만4천630원

#### 장려금 1천8백원 포함

올해 보리수매가격은 자체인상과 가마당 출하장려금 1천8백원을 포함, 7.5%가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보리수매가격인상을 이같이 확정, 오는 8월4일까지 한달동안 생산농가의 출하희망전량을 현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리쌀 방출가격도 7.5%, 소비자가격은 7.0%를 인상,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곡수매가격은 쌀보리 76.5kg들이 한가마에 3만9천70원으로 작년수매가보다 2천9백70원이 올랐고, 농민이 조곡으로 출하하는 겉보리는 2등급 50kg들이가 1만7천1백30원으로 1천1백90원이 인상됐다.

또 보리쌀 방출가격은 76.5kg들이 가마당 3만5천6백40원으로 2천4백86원이 올랐다. 농수산부는 작년동기 대비 도매물가는

2.3%가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는 2.5%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하곡수매가를 인상한 것은 보리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시중보리값 급등에 따라 농민들의 수매기피를 사전에 막고 물가상승자극을 막으면서 최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한 조치이다.

#### ◇86년산 하곡수매가격

(조곡기준, 단위: 원)

	쌀보리 (60kg)	겉보리 올 보리(50kg)	맥주보리 (50kg)
1 등품	24,630	18,110	24,130
2 등품	23,510	17,130	22,820
등외품	19,920	14,190	19,140

이번 하곡수매로 총9백억원이 농가에 풀려나간다.

농수산부는 하곡수매가 인상으로 양곡기금의 적자폭은 76.5kg들이 가마당 1만9천4백74원에서

1만9천6백94원으로 2백20원이 늘어 하곡으로만 4백42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보리주산지인 영·호남지방이 집중호우와 장마로 건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감안, 수매개시일을 예년보다 4~5일 늦춘대신 일괄 현금수매해 농민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 들쥐잡기운동 전개 시군별 시범구 설정

농수산부는 들쥐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들쥐잡기운동을 벌인다.

조생종 벼의 배동설때와 중만생종 벼의 배동반이때 등 농산물의 결실기에 맞춰 지역별로 방제일을 설정해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들쥐잡기는 농가부근 1백50m 이내와 피해중심지로부터 외곽 80m 범위의 피해가 많은 논 43만 ha에 1ha당 2kg씩 모두 86만kg의 쥐약을 놓게 된다.

특히 올해는 각 시군에 들쥐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지역을 구서(驅鼠)시범지역으

로 선정하되 1개소당 1ha이내의 구서지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產地부터 가격안정유도 市·郡·邑에 「협의회」설치

정부는 농산물생산 및 출하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군·읍·면에 유통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생산조정협의회를 폐지, 그 기능을 유통개선협회에 흡수보강, 단협등 생산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조정계획을 수립,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유통개선협의회산하에 실천조직으로 작목별 유통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산물유통에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작목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 관측심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농업관측심의회는 가격등락이 심한 고추·마늘·양파등 주로 발작물에 대한 식부의향·작황·출하동향등을 관측해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